"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THE SOUND SCAPE

소리의 풍경화

KBS교향악단 제791회 정기연주회

지휘 |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 기돈 크레머 Gidon Kremer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KDB산업은행 | 더클래스효성

2023.06.24. (SAT) 20:00 롯데콘서트홀

Etiquette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1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2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3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4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5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바그너 | 탄호이저 서곡, WWV 70 (드레스덴 버전) 14'
R. Wagner | Tannhäuser Overture, WWV 70 (Dresden Version)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Op.129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버전_슈만 편곡) 25'
R. 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129
(arr. for Violin and Orchestra by Schum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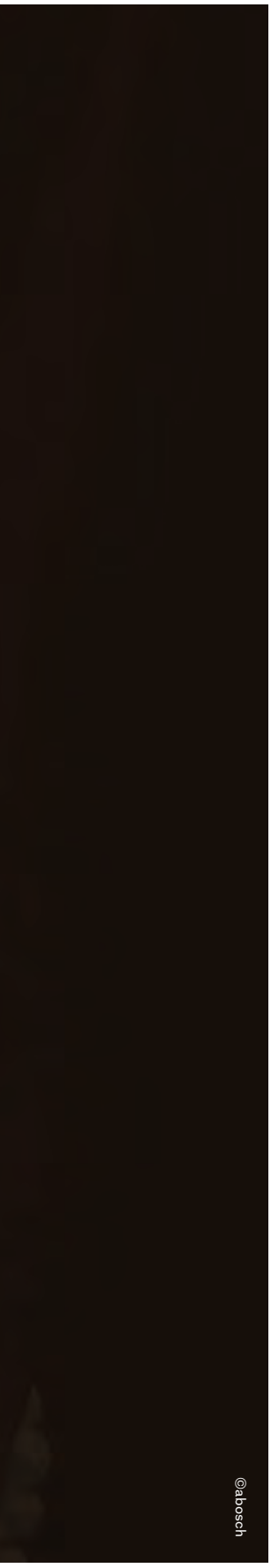
1악장 너무 빠르지 않게(12')
Nicht zu schnell

2악장 느리게 (5')
Langsam

3악장 매우 활기차게 (8')
Sehr lebhaft

인터미션 Intermission 15'

스트라빈스키 | 불새 전곡 45'
I. Stravinsky | The Firebird (Complete)



YOEL LEVI

CONDUCTOR

지휘 | 요엘 레비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 <그라모폰> 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KBS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악단들을 지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해 피렌체,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등지의 세계적인 오페라단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협연자와 함께 40장 이상의 음반을 녹음했으며, 이 중 30장의 음반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텔라크 레이블에서 발매하였다. 2018년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루마니아 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원, 예루살렘 음악 아카데미,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78년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6년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트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지휘자로 경험을 쌓았고, 이후 12년간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악단을 이끌었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수차례의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GIDON KREMER

VIOLINIST

바이올린 | 기돈 크레머

기돈 크레머의 예술 철학에 결코 타협이란 없다. 그가 우리 시대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예술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음악가로서 그의 레퍼토리는 고전적인 작품부터 현대의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다. 그는 유럽 주요 작곡가들의 신곡을 연주했으며, 이 중 일부는 그를 위해 작곡된 헌정곡이기도 하다. 알프레트 시닛케, 아르보 패르트, 기야 칸첼리,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발렌틴 실베스트로프, 루이지 노노, 에디슨 데니소프, 아리베르트 라이만, 페테리스 바스크스, 존 애덤스, 빅토르 키시네, 마이클 나이먼, 필립 글래스, 레오니드 데시아트니코브, 아스토르 피아졸라 등 현대곡 연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신선함과 독창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

기돈 크레머는 무려 120장이 넘는 음반을 녹음하였으며, 탁월한 해석과 통찰력으로 권위 있는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하였다. 지멘스 음악상, 독일 십자공로훈장, 모스크바 트라이엄프 상 2000, 유네스코상, 베니스 평생 음악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음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미엄 임페리얼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47년 라트비아 리가에서 태어난 그는 리가 음악원과 모스크바 음악원을 거쳐 1967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1969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 1969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와 1970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여러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를 휩쓸며 이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급부상하였다.

1997년에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앙상블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발족하였다. 기돈 크레머와 함께 30여장의 실내악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지난해 크레메라타 발티카 2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월드 투어를 진행했다.

R. WAGNER

바그너 | 탄호이저 서곡, WWV 70 (드레스덴 버전)

R. Wagner | Tannhäuser Overture, WWV 70 (Dresden Version)

작곡연도	1843-1845년
초 연	1845년 10월 19일, 독일 드레스덴
편 성	피콜로,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심벌즈, 탬버린, 현5부
연주시간	약 14분

1845년 10월 19일 드레스덴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된 바그너의 <탄호이저>는 중세의 기사이자 음유시인 탄호이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오페라 속의 탄호이저는 베누스베르크에서 사랑의 여신 베누스와 함께 욕정을 탐닉하다가 싫증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게 된다. 그때 바르트부르크 성 앞에서 예전에 함께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동료 음유시인들을 만난 탄호이저는 다시금 바르트부르크의 노래 경연대회에 나간다. 대회에서 영주 헤르만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 노래하라고 명하자 음유시인들은 차례로 고귀한 정신적 사랑에 대해 노래하지만, 이미 베누스베르크에서 관능의 세계를 맛본 탄호이저에게 이런 노래는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결국 탄호이저는 육체적인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파문을 일으키고, 이 일로 탄호이저는 순례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명을 받게 된다.

'욕정의 세계' 베누스베르크와 '도덕의 세계' 바르트부르크의 대립은 오페라 <탄호이저>의 핵심을 이룬다. 두 세계의 갈등은 <탄호이저> 서곡에서도 느낄 수 있다. 서곡의 도입부는 먼저 성스러운 세계를 뜻하는 순례자의 테마로 시작한다. 관악기에 의해 조용하게 시작되는 순례자의 테마는 현악기의 물결치는 반주에 힘입어 점차 고조되지만, 어느새 베누스 동산의 관능적인 선율이 솟아오른다. 반짝이듯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소리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전해주는데, 베누스베르크를 묘사한 이 놀라운 음악에 대해서는 선배 작곡가였던 베를리오즈의 관현악법을 모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베누스베르크를 묘사한 부분에서 바그너는 뻔뻔스럽게도 베를리오즈 음악의 상당 부분을 훔쳐오기까지 했다....바이올린이 높은 음역에서 소란스러운 악구를 끊임없이 연주하고, 목관악기는 날카롭고 변덕스러운 음표를 쏟아내며, 이따금씩 심벌즈가 충돌하고 탬버린이 짤랑거린다. 오케스트라의 이러한 색채적 효과는 절대로 바그너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다."
- 영국 선데이 타임스(1855년)

베누스베르크의 음악이 베를리오즈를 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어지는 탄호이저의 '베누스 찬가' 주제에는 바그너다운 벅찬 환희의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서곡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는 순례자의 테마는 금관이 주도하고 현악은 이를 반주하는 바그너식 관현악법이 사용된다. 순례자의 테마가 절정에 달하는 장면에서 현악기의 폭풍 같은 연주를 배경으로 금관악기가 웅장하게 순례자의 테마를 연주하면서 서곡이 마무리된다.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Op.129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버전_슈만 편곡)

R. 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129
(arr. for Violin and Orchestra by Schumann)

작곡연도	1850년(원곡) / 1853년(바이올린 편곡)
초　　연	1860년 4월 23일, 독일 라이프치히
편　　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25분

로베르트 슈만은 자신의 첼로 협주곡을 바이올린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 버전을 남겼다. 이는 당대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을 위한 것이었다. 슈만은 요아힘이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공부할 당시부터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요아힘은 13세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훌륭하게 연주해 내면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요아힘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던 슈만은 뒤셀도르프의 음악감독으로 있던 1853년 5월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라인강 하류 음악제(Niederrheinisches Musikfest)에 요아힘을 초청했다. 22세의 요아힘은 음악제에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였고, 슈만은 이 연주에서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다소 보수적인 스타일이었던 요아힘에게 견고한 형식을 갖춘 베토벤의 협주곡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것이다.

연주가 끝난 후 슈만은 요아힘의 연주를 극찬했고, 요아힘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얼마나 뛰어난 곡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또한 최근에 작곡되고 있는 바이올린 작품들이 기교만 화려하고 음악적인 내용은 얼마나 부실한지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슈만은 요아힘에게 어울린 만한 곡을 작곡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곧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를 작곡해 요아힘과 함께 이 곡을 초연했다. 또한 제자였던 디트리히, 브람스와 합작하여 작곡한 <F-A-E 소나타>를 요아힘에게 헌정한 것에 이어 요아힘을 위한 바이올린 협주곡도 작곡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작곡했던 첼로 협주곡을 요아힘이 연주할 수 있도록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했는데, 오늘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이 바로 이 버전이다.

원곡인 첼로 협주곡은 슈만이 남긴 유일한 첼로 협주곡으로, 뒤셀도르프 음악감독 취임 다음 달이었던 1850년 10월, 불과 14일에 걸쳐 완성되었다. 슈만의 부인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슈만은 이 곡의 완성에 매우 기뻐하며 1850년 11월 16일자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이 작품은 나를 매우 기쁘게 한다. 이 곡은 진정 첼로 스타일로 작곡되었다."

또 그 이듬해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 곡은 내게 진정한 음악적인 행복감을 안겨준다. 그 낭만성과 활력, 신선함과 유머, 그리고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흥미진진하게 얽혀드는 과정 모두 황홀하다. 모든 선율적인 악절에 듣기 좋은 음조와 깊은 감정표현이 담겨 있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클라라 슈만의 말대로 “첼로 스타일”로 작곡된 곡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곡은 바이올린과도 무척 잘 어울린다. 첼로와 바이올린 모두 현악기 특유의 노래하듯 서정적인 매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다만 첼로로 연주했을 때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다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 날카롭고 화려한 맛이 가미되어 색다르다. 편곡 버전의 바이올린 악보는 간혹 음역 상의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첼로와 거의 같지만,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 한결 날렵하고 화사하기에 특히 활기찬 3악장에서 연주 효과가 뛰어나다.

1악장 Nicht zu schnell(너무 빠르지 않게)은 목관악기의 짧은 서주에 이어 곧바로 바이올리니스트가 서정적인 제1주제를 연주하며 시작된다. 처음에 들려오는 서정적 선율에 이어 좀 더 리드미컬한 주제가 갈등을 일으키며 긴박감을 조성한다. 1악장 후반부에 템포가 점차 느려지면서 2악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어지는 2악장 Langsam(느리게)은 슈만의 예술가곡과도 같은 서정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악장이다. 첼로 솔로와 바이올린 솔로가 어우러지며 마치 발레의 2인무와 같은 분위기가 흐른다. 후반부에 템포가 점차 빨라지면서 3악장으로 연결된다. 오케스트라가 짧고 강한 음표들을 연주하며 시작되는 3악장 Sehr lebhaft(매우 빠르게)는 리듬이 반복되면서 열정과 생기가 전해진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공연의 출연진들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YouTube KBS교향악단

연주자가 무대 밖에?! 오프스테이지 연주자란?

오프스테이지(offstage)란 스테이지, 즉 무대를 벗어난 장소를 뜻합니다. 오프스테이지 연주자는 관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연주하게 되는데, 그 위치는 무대 뒤가 되기도, 때로는 객석이 되기도 합니다.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향적 효과를 원했던 작곡가들은 오프스테이지 기법을 통해 거리감과 울림이 가미된 색다른 소리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스테이지 연주자들은 어떻게 지휘를 보고 연주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지휘자의 몸짓을 그대로 따라해 무대 밖에 전달해주는 보조 지휘자를 두었습니다. 현대에는 무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지휘를 송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낯선 곳으로부터 신비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소리가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I. STRAVINSKY

스트라빈스키 | 불새 전곡
I. Stravinsky | The Firebird (Complete)

작곡연도	1909년
초 연	1910년 6월 25일, 프랑스 파리
편 성	피콜로, 플루트3(세 번째 주자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3,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3(E♭클라리넷 겸함),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3(세 번째 주자는 콘트라바순 겸함), 콘트라바순,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실로폰, 탐탐, 탬버린,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심벌즈, 큰북, 서스펜디드 심벌, 하프3, 첼레스타, 피아노, 현5부 (Stage Band) 트럼펫3, 바그너 튜바4, 차임벨
연주시간	약 45분

발레음악 <불새>는 청년 스트라빈스키에 큰 성공을 안겨준 의미 있는 작품이다. 러시아 발레단 '발레 뤼스'를 이끌던 세르게이 댜길레프가 27세의 젊은 음악가 스트라빈스키에게 <불새>의 음악을 의뢰하는 도박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스트라빈스키는 그토록 일찍 명성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앞서 댜길레프는 아나톨리 랴도프에게 발레 <불새>의 음악을 작곡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였으나 랴도프의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달콤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쓰는 재능이 있었던 랴도프에게 <불새>의 거친 내용은 애초부터 별로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댜길레프는 다시 <불새>의 작곡에 적합한 작곡가를 물색하던 중 젊은 음악가 스트라빈스키를 떠올렸다. 1909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스트라빈스키의 <환상적 스케르초>와 <불꽃놀이>를 들은 적이 있었던 댜길레프는 스트라빈스키 관현악 특유의 환상적이고 원시적인 색채감이 발레 <불새>에 딱 맞을 거라 확신했다. 일찍이 림스키-코르사코프로부터 음악을 배운 댜길레프는 연극과 미술뿐 아니라 음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스트라빈스키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댜길레프는 짧은 경력의 젊은 음악가에게 대작을 의뢰하는 도박을 감행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10년 6월, 미하일 포킨의 안무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 의한 발레 <불새>가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다. 청중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과 멋진 발레에 환호했고 <불새>로 대성공을 거둔 스트라빈스키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음악에 매우 만족한 댜길레프는 이후 스트라빈스키에게 발레 <페트루슈카>와 <봄의 제전>의 작곡도 부탁했다. 이렇게 하여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음악인 <불새>와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이 차례로 완성될 수 있었다.

스트라빈스키는 1910년에 발레음악 <불새>로 이름을 알린 후 9년 뒤인 1919년에 <불새> 전곡 가운데서 다섯 곡을 뽑아 모음곡을 만들었다. 이 모음곡은 발레 오리지널 버전의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 '서주'와 '불새의 춤', '공주의 론도', '카슈체이 일당의 춤', '자장가'로 구성된 작품으로, 관현악 연주회에서는 이 모음곡 버전이 연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늘 공연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불새> 전곡이 모두 연주되므로 발레의 줄거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발레 <불새>의 이야기는 한밤중으로부터 시작한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역시 깊은 밤을 나타내듯 약음기를 사용하는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어두운 음색으로 시작한다. 비올라와 목관악기들이 점차 가세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때 현악 연주자들의 글리산도*가 만들어내는 음향효과는 매우 놀랍다. 이는 단순한 글리산도가 아니라 하모닉스** 주법과 글리산도 주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이윽고 젊은 이반 왕자가 마법사 카슈체이의 정원에 나타난다. 왕자는 신비로운 불새를 잡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호른이 신비로운 선율로 정원에 감돌고 있는 마법을 표현해낸다. 때마침 황금빛 깃털을 단 불새가 마법의 정원에 나타나는데, 불새가 등장하는 장면은 굳이 발레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음악만으로 감지할 수 있다. 고음 현악기의 빠른 음형은 불타오르듯 눈부신 불새의 모습을, 피콜로를 비롯한 목관악기들의 선율은 불새의 날갯짓을 표현하는 듯하다. 마법의 정원에 있는 황금 사과를 따려던 불새는 그만 이반 왕자에게 붙잡히고 만다. 불새는 힘껏 날갯짓을 해보지만 왕자는 불새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부분의 음악은 마치 발레의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듯 생생한 묘사가 돋보인다. 불새의 춤은 약음기를 사용한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가벼운 음향으로 표현되고, 불새가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에서 클라리넷이 빠른 음형을 연주한다.

불새를 사로잡은 왕자는 불새에게 빛나는 황금빛 깃털 하나를 주면 놓아주겠다고 말한다. 불새의 깃털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힘이 있기에 그를 탐한 것이다. 불새는 하는 수 없이 왕자에게 깃털을 하나 뽑아주며 위급할 때 흔들라고 말하고는 달아나버린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오래된 성문 앞에 12명의 시녀들과 아름다운 차레브나 공주가 나타난다.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왕자는 공주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왕자와 공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음악은 지극히 서정적인 오보에 선율로 표현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공주가 지내는 성 안에는 마법사 카슈체이가 살고 있었는데, 마법사가 공주와 시녀들에게 마법을 건 탓에 새벽이 되면 공주와 시녀들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윽고 새벽이 다가오자 공주는 시녀들을 거느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공주와 헤어지기 싫은 왕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공주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를 뒤따라간다.

왕자가 성안으로 들어가자 큰 종소리가 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나타난다.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등장한 마법사 카슈체이는 이반 왕자를 돌로 변하게 하는 마법을 건다. 궁지에 몰린 이반 왕자는 재빨리 황금빛 깃털을 흔들어 불새에게 도움을 청한다. 왕자가 깃털을 흔들자 곧 불새가 나타나 괴물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도록 주문을 건다. 괴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춤을 추며, 이때 연주되는 음악은 긴박감 넘치는 리듬과 금관악기의 강렬한 음색으로 표현되며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춤을 추다 지친 괴물들은 잠이 들고, 불새와 왕자는 그 틈을 타 카슈체이의 영혼이 담긴 알을 훔쳐내 깨뜨린다. 그러자 카슈체이의 마법은 모두 사라지고, 카슈체이에게 잡혀있던 사람들 역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마법에서 풀려난 차레브나 공주와 이반 왕자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모두가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극은 막을 내린다.

글 | 최은규(음악 칼럼니스트)

---

* 글리산도(glissando) : 음과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주법
** 하모닉스(harmonics) : 현 위에 손가락을 살짝 얹어 부드럽고 투명한 소리를 내는 주법

K-CLASSIC SPOTLIGHT SERIES

6. 30.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협연
박수예
(바이올린)
이혁
(피아노)

작곡가
이수연

K-클래식 스포트라이트 시리즈

2023. 6. 30. (FRI) - 7. 1. (SAT)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7. 1.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협연
심준호
(첼로)
박재홍
(피아노)

작곡가
김신

공연 상세정보 보기

예매 LG ARTS CENTER SEOUL | 1661-0017 INTERPARK티켓 | 1544-1555

티켓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주최·주관 KBS교향악단 문의 02-6099-7400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한창록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악장 * 부악장 ** 수석 + 부수석 ++

제1바이올린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박서현 최여은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장세나 Matthew Ernster 임예지
하프	김서원

객원단원

악장	David Coucheron*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제1바이올린	정원영+
클라리넷	이승훈++
호른	Hui-Yi Lee+
트롬본	Henri-Michel Garzia+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이한신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사원** 손명조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대리** 이미라 **주임** 김민중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주임** 박태균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